

도내 총경 승진 후보 '관심 집중'

연말 경찰 승진시기 다가옴에 따라... 女 총경 배출 가능성도 커 권현주 전북청 강력계장 · 한달수 수사2계장 등이 물망에 올라 여성 총경 후보에 권미자 보안1계장 · 이인영 여성보호계장

연말 경찰 승진시기가 다가오며 전북도내 총경 승진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여성 총경 배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총경은 경찰 계급의 꽃이라고 불린다. 일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 각 부서 과장으로 활동하며 실질적

로 조직을 꾸리는 계급이어서다. 총경 승진자는 근무성적평정, 경정 배명 시기, 입직 경로(일반·간부후보·경찰대)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매해 2~3명의 총경이 배출됐다. 지난해 2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와 올해는 3명 배출이 기대된다. 지난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 전북청 소속 대상(가나다순)은 2009년 경정으로 승진한 권현주 강력계장(경찰대)과 한달수 수사2계장(경찰대), 2010년 승진한 김종신 정보3계장(경찰대), 2011년 승진한 강태호 감찰계장(일반)과 박삼서 정보2계장(간부후보) 등이다. 또 일선 경찰서에서는 2007년 승진

한 고준호 전주직전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찰대)과 2010년 승진한 박승관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일반)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을 넓혀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 전북지역 여성 총경 배출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09년 경정으로 승진한 권미자 전북청 보안1계장(일반)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2011년 승진한 이인영 전북청 여성보호계장(일반)도 후보군에 있다. 한편 올해 총경 인사는 내년 1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훈 기자



이동국과 함께 뛰는 친선 축구 중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 이동국 선수의 친목회 이마발(이 생애 마지막 발악) 회원들과 전북 유소년팀 전주영생고, 금산중학교와 친선 축구경기를 실시한 가운데 이동국 선수와 이마발 회원들, 전주영생고등학교, 금산

'공공선 추구 시민 길러야'... 전주시 평생학습포럼 성료

시민교육은 시민자격을 갖추며 공공선(public good) 추구하는 시민을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평생학습포럼에서 제기됐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지난 7일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18 전주평생학습포럼'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평생학습 전문가와 평생학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교육과 평생학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와 '시민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시민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정태석 교수는 '시민은 누구이며, 시민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민의 자격과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시민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며 "사회적 쟁점과 갈등들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창영 한국시민교육협회장도 '시민형성과 시민성, 시민과 시민교육과 통하기'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여성 평생교육, 노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 다문화평생교육이 시민교육이라 칭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틀 안에 포함된 것인지 다른 영역으로 인

정할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며 "자칫 갈등과 오해, 분열이 야기 될 수 있는 데, 이렇듯 다시 한번 교육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교육이 아닌 '더불어 만드는 교육'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이경환 전주교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창영 한국시민교육협회장과 정태석 전북대 교수, 최순영 베를린 훔볼트대 철학박사, 조정현 전주YMCA 사무총장 등 4인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시민교육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효철 기자

상가 앞 유모차 흠치다 덜미

상가 출입문 앞에 놓아 둔 쌍둥이 유모차를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79)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 40분께 익산시 B로 CC종합주방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모씨(35)가 세워 놓은 120만원 상당의 쌍둥이 유모차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했다. 이에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께 피의자를 붙잡았다. 피의자 A모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울퉁불퉁 평화동 길, 걷기 좋게 탈바꿈

전주시, 평화1동 1.6km 구간 대상 보행친화 시범사업 추진 내년 5월까지 총 10억원 투입... 보도블록 평탄하게 정비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울퉁불퉁해 걷기 불편했던 전주시 평화1동 일대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어르신, 유모차도 다니기 편리한 보행친화거리로 바뀐다. 전주시는 내년 5월까지 총 10억원을 투입해 평화1동 주민센터와 평화주공 1·2단지 주변을 대상으로 보행친화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총 길이 1.6km(평균 폭 2~5m)로, 시는 장승배기로와 덕적1·2길의 오래돼서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보도나 경계석을 교체하고, 통행이 불편한 보도에는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턱을 낮춰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이곳 보도를 걷기 편리하게 만들 계획이다. 또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수립된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의해 평화동 일대를 보행환경개선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는 평화1동의 경우 1,6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보도가 개설된 지 오래돼 파손되거나 평탄하지 못한 탓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다니기 불편하고, 가로수가 보도블록을 높고 움기되는 등 일반 시민들도 보행에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원하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유영문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길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친화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내년 3·1운동 100주년 전주시, 발상지 기념비 정비

3.1운동 100주년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전주시역 3·1운동을 기념한 기념비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내년 2월까지 전주시 3·1운동 발상지인 남부시장 매곡교 입구에 위치한 전주시역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곳은 전주시역에서 펼쳐진 3·1운동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지만 남부시장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 시장 상인들이 쌓아 놓은 과일과 야채,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평소 청결한 관리가 어려웠다. 또, 기념비 뒤편에는 가건물 등이 방치돼 미관을 저해해왔다. 이에, 시는 총 1900만원을 투입해 기념비 주변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과 차단석도 설치키로 했다. 또, 주변 가건물을 철거하고, 남부시장 안 내관도 이적키로 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찾는 관광객의 전주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방문에 대비해 기념비 관람 후 인근 전주천 풍경 감상도 가능한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고,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한 조명을 설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조차 잘 모르고 있던 이곳을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으며 언제든지 3.1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전주시 3·1운동 발상지 기념비를 조성한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광복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다올마당 등 관련 단체의 자문을 얻어 전주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주변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역 3.1운동 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미추서자 38명에 대한 공훈기록을 조사해나가고 있다. 또, 항일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공간을 마련하고, 내년 3월에는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선열들을 기리는 전주시민 축제도 열 계획이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기념비 주변 정비 사업은 후손들이 3·1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향후 기념비 주변의 지속적인 청결관리를 위한 시장상인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